

실전모의고사 2회 - 피들형 정답과 해설

(본문 024p)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①	④	④	①	①	②	⑤	⑤	⑤	②	③	④	④	④	③	⑤	⑤	⑤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③	④	①	③	①	②	④	④	⑤	②	②	①	⑤	④	④	③	④	⑤	③	⑤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⑤	①	⑤	③	⑤	④	⑤	②	③	⑤	④	③	①	②	②	⑤	④	④	②	①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②	①	③	⑤	②	③	④	⑤	④	①										

01~15 의사소통능력

01 [문서이해능력] 단어의 의미 이해하기

해설 정답 ③

주어진 문장에서의 '넘겼다'는 '물건, 권리, 책임, 일 따위를 맡기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③이다.

Plus 해설

- ① '중이, 책장 따위를 짓히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 ② '서 있는 것을 넘어지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 ④ '음식물, 침 따위를 목구멍으로 넘어가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 ⑤ '지나쳐 보내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02 [문서이해능력] 어휘의 뜻 이해하기

해설 정답 ②

'편성'은 '엮어 모아서 책, 신문, 영화 따위를 만들'이란 의미이므로 ㉠에 쓰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문에서는 '무엇을 만들어서 이름'의 뜻을 지닌 '조성'이 쓰이는 것이 적절하다.

Plus 해설

- ③ '준설'은 '물의 깊이를 깊게 하여 배가 잘 드나들 수 있도록 하천이나 항만 등의 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일'을 의미하므로 맥락상 쓰임이 적절하다.
- ④ '지정'은 '가리키어 확실하게 정함'이라는 뜻으로 맥락상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 ⑤ '타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뭍으

로 주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받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맥락상 쓰임이 적절하다.

03 [문서작성능력] 적절한 단어 파악하기

해설 정답 ①

㉠에는 '회의에서 의논할 문제'라는 뜻의 '의제'가, ㉡에는 '토론회나 연구회 따위에서 어떤 주제를 맡아 조사하고 발표함'이라는 뜻의 '발제'가 들어가야 한다.

Plus 해설

- 논제 : 논설이나 논문, 토론 따위의 주제나 제목
- 입론 : 의논하는 취지나 순서 따위의 체계를 세움 또는 그 의논

04 [문서이해능력] 단어의 관계 파악하기

해설 정답 ④

㉠ '맹점'은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한 모순되는 점이나 틈'을 뜻하고, ㉡ '무결'은 '결함이나 흠이 없음'을 뜻하므로 ㉠ : ㉡은 반의 관계이다. ④의 '이미 결정되어 있음'을 뜻하는 '기정'과 '아직 정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미정'도 반의 관계이므로 정답이다.

Plus 해설

- ① '어떤 일을 해 나가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취하는 수단이나 방식'을 뜻하는 '방법'과 '어떤 일을 해나갈 방도'를 뜻하는 '도리'는 유의 관계이다.
- ② '의복'은 '몸을 싸서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피륙 따위로 만들어 입는 물건'을 뜻하는데 '양



실전모의고사 4회 - PSAT형 정답과 해설

(본문 134p)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⑤	⑤	②	⑤	③	①	②	③	⑤	②	④	④	⑤	①	①	⑤	④	②	⑤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⑤	③	④	⑤	①	①	③	①	③	④	⑤	⑤	④	⑤	①	①	③	③	④	④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④	④	④	②	①	①	④	①	③	②	①	③	⑤	③	③	⑤	①	③	③	③

01~15 의사소통능력

01 [문서작성능력] 글의 흐름 파악하기



해설

정답 ④

3문단의 '저임금 구조의 고착화로 농장주와 농장 노동자 간의 소득 격차는 갈수록 벌어졌고'를 통해 계급의 양극화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㉔의 '중간 계급으로의 수렴현상이 나타난 것이다'를 '계급의 양극화가 나타난 것이다'로 고쳐야 한다.

02 [문서이해능력] 빈칸에 들어갈 내용 찾기



해설

정답 ⑤

(가)의 앞 문장은 예술가는 작품을 만드는 동안 예술 제도로부터 단절될 수 없다는 내용이고, 뒤 문장은 예술가는 예술 제도 속에서 경험하고 지식을 얻는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가)에는 예술 제도와 예술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인 ㉔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나)의 앞 문장에서 어린아이들의 그림이나 놀이조차도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나)에는 어린아이들과 문화의 관계를 설명한 ㉔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다)의 앞 문장은 예술작품을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던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냈더라도 그 사람은 예술작품을 창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고, 뒤 문장은 예술가는 아무 맥락 없는 진공 상태에서 창작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다)에는 예술작품의 창조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내용인 ㉔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3 [문서이해능력] 세부 내용 파악하기



해설

정답 ⑤

3문단의 '또한 지식 통합 작업은 지식을 수집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면 지식의 수집뿐만 아니라 선별하고 배치하는 편집 권한까지 포함하게 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Plus 해설

- 2문단에 미국 출판업계와 구글 간의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나, 연방법원이 이 합의안을 거부하였다고 나와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3문단에 지식 통합 작업으로 지식의 비대칭성이 강화되고, 사회계약의 토대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나와 있다.
- 3문단에 구글의 지식 통합 작업으로 사람들이 알아도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력을 구글이 갖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 1문단에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책들이 무료로 서비스되고 있다고 나와 있다.

04 [문서이해능력] 세부 내용 파악하기



해설

정답 ②

2문단의 '타자들로 가득한 현실을 경험함으로써 인간은 스스로 변화하는 동시에 현실을 변화시킬 동력을 얻는다.'에서 알 수 있다.



Plus 해설

- 1문단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 손에 닿지 않는 제도, 장기간 반복되는 일상은 체험행사에서는 제공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다.
- 2문단에 가상현실은 실제와 가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고 나와 있다.

할지라도 의무에서 나온 행위는 아니다. 의무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라면 심리적 성향에서 비롯된 행위가 되는데~에서 추론할 수 있다.

14 [문서이해능력] 세부 내용 파악하기



해설

정답 ⑤

①의 앞부분에는 저조한 비행 성과는 비판하되 뛰어난 성과는 칭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①의 뒷부분에는 유난히 비행을 잘하거나 유난히 비행을 못하는 경우는 둘 다 흔히 없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①은 유난히 잘하거나 못하는 특별한 상황은 연속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오류임을 알 수 있다.

15 [문서이해능력] 논지를 비판하는 진술 찾기



해설

정답 ①

이 글의 논지는 스마트폰의 메커니즘이 K의 두뇌 속에서 일어난다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것을 K 자신의 기억이나 판단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런 과정은 K 자신의 인지 능력이라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를 비판하려면 K 자신의 기억이나 판단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반례를 제시해야 한다. K가 미리 적어 놓은 메모를 참조해서 기억력 시험 문제에 답하는 것은 답을 기억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진술은 스마트폰 기능을 K 자신의 기억이나 판단으로 인정한다는 글의 논지를 비판한다.

16~37 수리능력

16 [도표분석능력] 자료 이해하기



해설

정답 ①

A국과 B국이 획득한 모든 메달 수를 합하여 종목별로 비교하면, 노르딕복합 5개, 루지 7개, 바이애슬론 7개, 봅슬레이 5개, 쇼트트랙 1개, 스노보드 9개, 스키레톤 1개, 스키점프 4개, 스피드스케이팅 1개, 아이스하키 2개, 알파인스키 3개, 컬링 1개, 크로스컨트리 1개, 프리스타일스키 4개, 피겨스케이팅 3개이므로 스노보드가 가장 많다.



Plus 해설

② A국이 획득한 금메달 수는 $3+3+3+3+1+1=14$ 개이고, C국이 획득한 동메달 수는

$2+2+1+2+1+3=11$ 개이다.

- ③ A국이 루지, 봅슬레이, 스키레톤 종목에서 획득한 모든 메달 수의 합은 $3+1+2+3+1+1=11$ 개이고, C국이 크로스컨트리 종목에서 획득한 모든 메달 수는 $7+4+3=14$ 개이다.
- ④ 메달을 획득한 종목의 수는 A국이 9개, B국이 11개, C국이 8개, D국이 9개이므로 메달을 획득한 종목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B국이다.
- ⑤ 획득한 은메달 수는 A국이 $1+1+1+1+1+1+3+1=10$ 개, B국이 $1+1+1+2+1+2=8$ 개, C국이 $1+3+1+1+4+4=14$ 개, D국이 $1+1+2+1+1+2=8$ 개이다. 따라서 획득한 은메달 수가 많은 국가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C, A, B=D국순이다.

17 [도표작성능력] 자료 변환하기



해설

정답 ⑤

2017년 항공사별 잔여석 수는 A가 $360-300=60$ 만 개, B가 $110-70=40$ 만 개, C가 $300-250=50$ 만 개, D가 $660-580=80$ 만 개, E가 $570-480=90$ 만 개, F가 $390-320=70$ 만 개이므로 ⑤는 옳지 않은 그래프이다. ⑤는 '2017년 항공사별 잔여석 수'가 아닌 '2016년 항공사별 잔여석 수'에 관한 그래프이다.

18 [도표분석능력] 자료 이해하기



해설

정답 ④

국세 징수액과 지방세 징수액의 차이는 2016년에 $216-62=154$ 조 원으로 가장 크고, 국세 감면율과 지방세 감면율의 차이는 2013년에 $32.7-15.6=17.1\%$ 로 가장 크다.



Plus 해설

- ③ 2008년 대비 2016년 징수액 증가율은 국세가 $\frac{216-138}{138} \times 100 \approx 56.52\%$ 이고, 지방세가 $\frac{62-41}{41} \times 100 \approx 51.21\%$ 이므로 국세가 지방세보다 높다.
- ⑤ 국세 감면율과 지방세 감면율의 차이는 2014년에 $33-15=18$ 조 원, 2015년에 $34-14=20$ 조 원, 2016년에 $33-11=22$ 조 원으로 매년 증가한다.

<팩트기출 NCS 실전모의고사 정오표>

초판 발행 2021년 05월 20일

페이지	번호	수정 전	수정 후
90p	문제 18번 보기 ③	전체 무상원조 중 긴급구호의 비율이 가장 낮았던 해는 2012년이다.	전체 무상원조 중 긴급구호의 비율이 가장 낮았던 해는 2013년이다.

공부하시는 데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확한 내용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